

RFAs 관련 유럽 주요기관방문 출장보고서

2015. 2. 16

글로벌경제연구TF

1 출장 개요

□ 목적

- EEU 출범 및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유럽지역의 RFAs(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조직 및 지역금융안전 관련 지역적 논의 이슈 파악
- 향후 RFAs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RFAs 핵심 기구의 임직원, 실무자 방문 및 면담
- 2015년 RFAs 컨퍼런스 관련 사전 협의

□ 일정: 2014.1.26(월)~1.31(토), 출·입국일 포함

□ 방문지(기관): 룩셈부르크(ESM), 모스크바(유럽개발은행-ACF)

□ 출장자: 손 욱 겸임연구위원(연구PM), 최정애 전문연구원(글로벌경제연구 TF)

2 주요 활동

□ 글로벌지역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및 지역금융안전망(RFA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연구를 심화시키고 향후 RFAs 관련연구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지역금융기구를 방문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 등 해당 기구 임직원·실무자 면담을 진행

- 지난 2013년 12월 한국 기획재정부 - 호주 재무부 - KDI -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G20 국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RFAs 연구의 기초를 닦은 후 출장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별 논의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상

- * G20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① G20의 성과와 과제, ②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s), ③ Spillovers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④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과 과제, ⑤ 지역금융안전망(RFAs)의 역할과 과제’
- * 당시 진행된 RFAs 세션에서는 불안정한 국제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역내 안전판으로서 RFAs의 역할을 조망하고, 신흥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 바 있음. 2015년에는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발전시켜, 금융안전망 분야에 대한 심층적·실무적 국제협력을 위해 네트워크 형성중

□ 동·서 유럽권 지역금융안전망 관련 기관방문

- 러시아를 위시한 동유럽 경제공동체인 EEU의 핵심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인 유라시안 위원회(Eurasian Commission)와 사법기관인 Court of the EEU, 금융기관인 유라시아 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이 있으며, EDB는 동구권 지역금융안전망의 핵심기구인 ACF(EuRaSEc-Anti Crisis Fund)를 운영중
- EU 국가들의 지역금융안전망 핵심기구인 유럽안정화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에서는 서유럽 금융시장과 지역금융안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
- 연구주제, 연구진, 연구 방향 협의
 - 향후 RFAs 및 글로벌금융안전망 관련 연구방향 협의
 - 6월 RFAs 국제회의 연구진 및 국제 컨퍼런스 토론자 등 섭외, 주제 방향의 논의
 - 기타 RFAs 및 지역금융안전관련 지역적 논의 이슈 파악

③ 면담자 명단

No.	Last Name	First Name	Full name of Institute / Organization	Participant's Position / Title
-----	-----------	------------	---------------------------------------	--------------------------------

1	Nicola	Giammarioli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Head of Strategy and Institutional Relations
2	Wolfgang	Proissl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Strategy and Institutional Relations
3	Gong	Cheng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Policy Strategies
4	Dominika	Miernik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Policy Strategies
5	Алексей В Alexey	Черкаев Cherekaev	Eurasian Development Bank	Director, Investment Project Group, EurAsEC Anti-Crisis Fund
6	Элла Р Ella	Бай биков a Baybikova	Eurasian Development Bank	Head, Research and Strategy Department
7	Алишер Р Alisher	Мирзоев Mirzoyev	Eurasian Development Bank	Investment Project Group, EurAsEC Anti-Crisis Fund
8	Tamara	Malsagova	Eurasian Development Bank	Project Manager, EurAsEC Anti-Crisis Fund
9	Alexander	Efimov	Eurasian Development Bank	Expert of Project Division, EurAsEC Anti-Crisis Fund

4 세부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1.26 (월)	13:35~17:40	인천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KE905 AF4603
	21:15~22:00	프랑크푸르트 환승-룩셈부르크 도착	
		Check-in	
1.27 (화)	10:00~15:30	ESM 방문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6a Circuit de la Foire Internationale L-1347 Luxembourg
		오찬	
1.28 (수)	11:10~12:10	룩셈부르크 출발 - 파리 경유	LG 9308(룩스에어) AF 4898(에어프랑스)
	13:25~19:20	파리 출발 - 모스크바 도착	
		Check-in	
1.29 (목)	14:00~17:00	러시아 ACF 방문	3, Bolshoy Vatin lane, Moscow, 109240, Russian Federation
1.30 (금)	18:10	모스크바 출발	KE924
1.31 (토)	08:55	인천 도착	

⑤ 기관별 면담 내용1)

[1] 유럽 안정화 기구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1. 기관소개

- (설립배경) ESM은 과거 회원국들의 재정위기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와 유럽재정안정화메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EFSM)을 대체하는 영구적인 구제 금융 프로그램으로 독일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2012년 10월에 출범
 - EFSF는 유로존 회원국의 보증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했으며, 대출, 국채 매입, 잠재적 위기국에 대한 예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해옴. EFSM은 EU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 ESM은 EFSF와 EFSM이 갖고 있던 한시성을 보완하여 영구적인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설립됨.
 - EU 회원국 상호간의 직접적인 구제 금융을 금지하는 EU조약(TFEU: 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때문에 EFSF는 ‘특수한 상황, 특정 조건 하에서만 활동’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기구라는 한계를 가졌음²⁾. 2011년 3월 유럽의회는 EU 조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유럽안정화기구를 발족함.

□ (EFSF와 ESM의 차이점)

- EFSF는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회사사(Private Company)로 되어 있으며,

1) 순서는 1. 기관소개, 2. 기관별 RFA 사업관련 프리젠테이션, 3. KDI 기관 소개 및 프로젝트 소개, 4. 관련 면담으로 이루어짐. KDI는 6월 국제회의 소개 및 EMFT와의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 하였으며, Call for papers 및 국제회의 프로그램 아젠다로 각 RFAs의 참여를 독려함.

2) 회원국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후 구제금융을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 채무 인수 금지(EU조약 125조), ECB의 회원국 국채 직접 인수 금지(123조), 회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권적 접근 금지(124조) 등을 규정

“The Union shall not be liable for or assume the commitments of central governments, regional, local or other public authorities, other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or public undertakings of any Member State, without prejudice to mutual financial guarantees for the joint execution of a specific project. A Member State shall not be liable for or assume the commitments of central governments, regional, local or other public authorities, other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or public undertakings of another Member State, without prejudice to mutual financial guarantees for the joint execution of a specific project.” (TFEU 125조)

ESM은 국제법을 따르는 다국가기구임.

- EFSF의 대출가능 최대금액은 192억 유로(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였으며, ESM의 경우 500억 유로임.

<표. EFSF와 ESM 비교>3)

	EFSF	ESM
Legal Structure	Private company under Luxembourg law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Duration	Temporary (June 2010 ~ June 2013)*	Permanent institution
Capital structure	Baked by guarantees of euro area Member States	Subscribed capital of €701.9bn** €80.2bn in paid-in capital €621.7bn in committed callable capital
Maximum Lending capacity	€192bn committed for Ireland, Portugal&Greece*	€500bn
Creditor Status	Pari passu	Preferred creditor status(after IMF)***
Credit Rating	AA / Aa1 / AA+	- / Aa1 / AAA
Risk Weighting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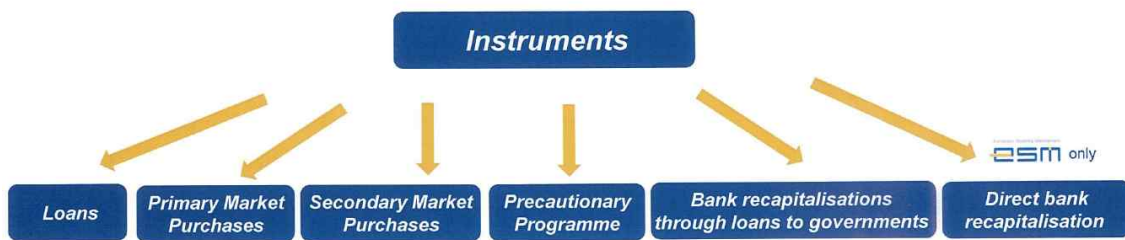
* As of 01/07/2013, EFSF may no longer engage in new financing programmes

** The initial subscribed capital of €700bn has increased since the accession of Latvia in March 2014

*** For the financial assistance for recapitalisation of the Spanish banking sector, pari passu will apply

**** Regulation (EU) no.575/2013 (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Article 118. Following a decision published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n 18 March 2014. EFSF & ESM securities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entities receiving a 0% risk weighting under Basel II

<그림. EFSF와 ESM 범위 비교>



□ ESM 조직 거버넌스

○ ESM 회원국은 EURO를 사용하는 19개 국가로 이루어짐.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리투아니아(2015년 1월 가입)

3) Nicola Giammarioli(Head of Strategy and Institutional Relations, ESM) 발표자료 (Jan.27)

- 위원회(Board of Governors) 구성: 각 국가에서 위원(Governor, 재정부 출신), 대리인 한명씩을 임명하며, 이외에 읍저버로는 경제·재정 위원, ECB 대표(President), 유로화 그룹 대표(President)가 참석
 - 위원회장은 네덜란드 재정부 공무원 및 정치인 출신 Jeroen René Victor Anton Dijsselbloem(1966~)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구성: ESM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 문제 중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회원국에서 한명의 이사와 대리인을 임명함. 읍저버로는 EC와 ECB가 참여하며, 이사회장(Managing Director)이 이끔.
 - 독일 출신의 Klaus P. Regling(1950~)으로, EFSF 창립초기에 조직의 CEO 였던 인물.
- 회계 위원회(Board of Auditors): Board of Governors, ESM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상임 회계기구, 유럽회계재판소(European Court of Auditors)에 의해 추천받고, Board of Governors에 의해 임명된 다섯 개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독립기구
- 이 밖에도 Risk Committee(위기에방 및 전략 자문) 및 Compensation Committee(기구내 보상관리 자문회) 등의 기구가 존재함.

□ ESM 주요 참여국 배당 및 의결권 등 (March 13, 2014)

ESM Members	ESM key (%)	Number of shares	Subscribed capital (€ million)
Belgium	3.4675	243,397	24,339.7
Germany	27.0716	1,900,248	190,024.8
Estonia	0.1855	13,020	1,302.0
Ireland	1.5878	111,454	11,145.4
Greece	2.8089	197,169	19,716.9
Spain	11.8709	833,259	83,325.9
France	20.3297	1,427,013	142,701.3
Italy	17.8643	1,253,959	125,395.9
Cyprus	0.1957	13,734	1,373.4
Latvia	0.2757	19,353	1,935.3
Luxembourg	0.2497	17,528	1,752.8
Malta	0.0729	5,117	511.7
Netherlands	5.7012	400,190	40,019.0
Austria	2.7757	194,838	19,483.8
Portugal	2.5023	175,644	17,564.4
Slovenia	0.4264	29,932	2,993.2
Slovakia	0.8217	57,680	5,768.0
Finland	1.7924	125,818	12,581.8
Total	100	7,019,353	701,9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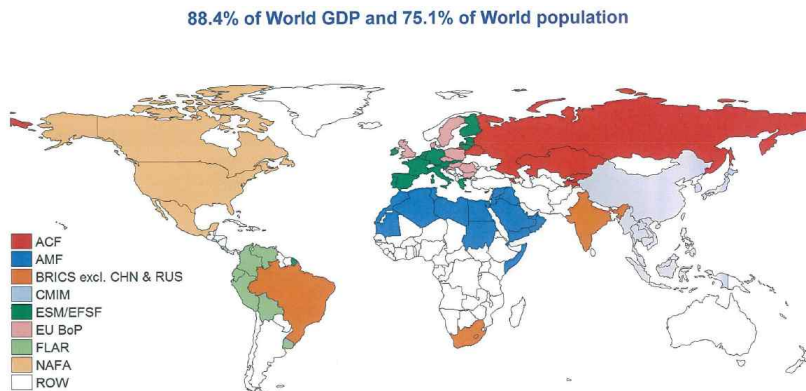
- 의사결정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며, 긴급 상황시 긴급투표 가능(회원국 85% 찬성시 가결). 납입자본 출자하지 않은 회원국은 투표권

정치

- 유로존 회원국의 보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EFSF와 달리 ESM은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802억 유로⁴⁾, 요구불자본금(Callable Capital) 6,217억 유로로 구성된 총 7,019억 유로의 자본금으로 구성되며, 가용대출규모는 5,000억 유로
- 유로존 회원국의 보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던 EFSF와 달리 ESM은 자본금으로 운영하므로, ESM의 투자정책은 EFSF보다 안정되어 있음.
- 가용대출규모는 총기금의 40%, 납입자본금/요구불자본금 비율은 11.4%로 맞추고 있음.
- ESM 사업 진행을 보면, ESM은 2013년 12월까지 스페인 은행에 413억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사이프러스에는 2016년 1분기까지 9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
- RFA에 대한 ESM의 기본 입장
 - ESM은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RFA 정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BRICS banks(상하이 위치)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 세계적 추이를 관찰하며 기관 노력을 하고 있음.

※ 전세계 GDP의 88.4%, 전 세계 인구의 75.1%가 RFAs 가입국

<그림. 전세계 RFAs 가입국 파악도>



4) 초기 납입자본금은 700억 유로이며, 2014년에 라트비아가 가입함으로써 802억 유로까지 증가

- Luxembourg 중심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에 위치한 Kirchberg는 EU 기관(EU STAT, European Investment Bank 등)이 모여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Manpower와 네트워킹에 특히 신경 쓰고 있음.

2. RFAs 국제회의 관련 논의

□ KDI 6월 국제회의의 소개 및 섭외

- ESM에서는 GFSN과 RFA의 향후 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함.
- 학술적인 입장에서 Gong Cheng 과 같은 정책 전문가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제회의 때 Nicola Giammarioli(Head of Strategy and Institutional Relations)박사가 직접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Gong Cheng 박사는 정책·경제학적 입장에서 학술논문을 써서 KDI에 제출할 예정
- RFAs, GFSN관련 세계적인 학술추세
 - Financial Safety Net 관련 국제 컨퍼런스가 올해 5월에 스웨덴에서 열림.
 - RFAs는 워싱턴에서 2년 반전에 러시아가 주재하여 열린 적이 있었음.

3. 주요 질의 답변

□ ESM에 있어 EU의 영향력

- ESM에게 EU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ESM 창립당시의 배경) 상당히 복잡한 편임. ESM이 창립될 당시에는 유럽 재정 위기가 촉발했을 시기이며, EU가 ESM과 같은 영구구제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ESM의 역할은 그리스 재정 위기 때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 했는데, 당시부터 차츰 EFSF의 활동이 동력을 받으면서 영구 구제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당시 ESM은

룩셈부르크의 사회사로 시작하였음. 2011년 ESM이 공식화 되었을 때 의 사결정 구도가 상당히 복잡했음.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conditionality에 대해 결정하였고, 다른 funding 관련된 부분은 외부로부터 아웃소스 되는 부분이 많았음. 당시에는 인원이 12명뿐이었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기도 했음.

- (프로그램 수행시) 현재까지도 역시 ESM 프로그램 수행시 European Commission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펀드 수립 및 프로그램 진행시 사이즈나 진행과정에서 EC와 밀접하게 협력함.
- (거버넌스 관련) ESM의 Board of Governors는 네덜란드 재정부 공무원 및 정치인 출신 Jeroen René Victor Anton Dijsselbloem이 임기 중임.

□ EFSF와 ESM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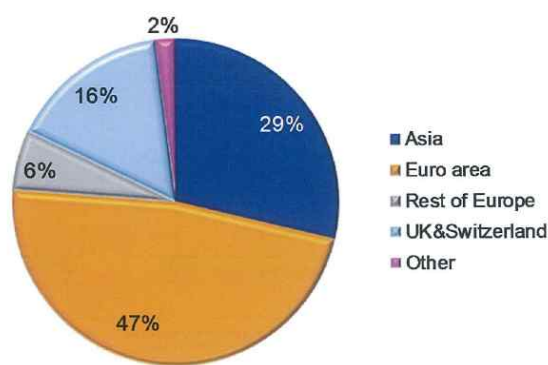
- 회원국 중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아일랜드, 스페인은 협상과정에서 소극적임. EFSF가 담당하던 그리스 대출도 ESM에서 이어받아 재협상과정중에 있음.

□ ESM과 아시아 국가 협력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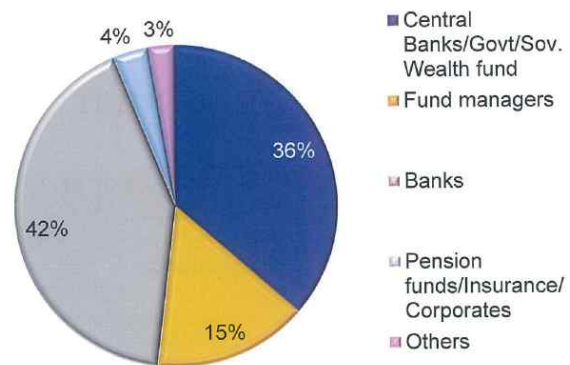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은 ESM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ESM 자금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도 투자 다양화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그림. ESM 자원 분포>

Geographical breakdown



Breakdown by investor type



□ 기관 신용도 책정의 근거? ESM 회원국들과의 신용도에 관계가 있는가?

- EFSF는 AA이고, ESM은 AAA 신용등급을 받고 있음. 등급 전망역시 안

정적(Stable)인 평가를 받았음. 이는 유로존 국가들의 강한 지원이 뒤따르는 점, 독일(AAA/무디스)과 프랑스(AA/무디스)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인 데 있음.

□ 모니터링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 우리는 IMF report등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데이터 및 국가별 정보를 수집. policy보다 financial monitoring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

□ 지난 여름에 트로이카 시스템(유럽 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이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 트로이카는 ECB와 EC가 IMF와 함께 하는 시스템이다. 90년대 말 한국의 재정위기 때처럼 IMF-국가의 재무부가 직접 상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ECB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트로이카를 진행시키는데 힘든 것은 사실이다.

※ 트로이카(EU, ECB, IMF) 시스템

- 2010년 5월 그리스 부채위기 이후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세 기관이 그리스에 11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제공한 바 있음.
- 목적: 유럽 내 재정위기 국가들의 긴축정책 상황 점검, 공동 실사 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별 재정건전성 회복, 유럽 내 금융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선조치

[2] Eurasian Development Bank (EURASEC Anti-Crisis Fund)

1. 기관소개

□ EURASEC Anti-Crisis Fund는 유라시아 6개국으로 구성된 위기방지기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극복과 장기적 경제안정, ACF 회원 국가 간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6월 설립

- ACF는 지역금융협의체로, 법적 효력이나 기구적 성격을 띠지는 못함.
- 현재 회원국은 6개 국가(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 Eurasian Development Bank의 본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펀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운용
- 조직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재정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경제 및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며, 더 나아가 회원국 간 지역 통합에 일조하기 위함.

□ Eurasian Development Bank의 주요 활동은 회원국내 투자, 시장 경제 개발, 경제 성장 및 무역 증진 등과 관련됨.

- EDB의 신용등급은 현재 BBB/A3/BBB
- EDB 자본금은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55억 달러를 포함한 70억 달러
- 2014년 9월 현재 통용중인 투자 금액은 총 36억 달러, 시행중인 프로젝트는 총 79개

□ ACF의 총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85억 달러이며 EDB에서 운영

○ 각 국가 당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음.

국가	지원액
Armenia	US\$ 1 million
Belarus	US\$ 10 million
Kazakhstan	US\$ 1 billion
Kyrgyzstan	US\$ 1 million
Russia	US\$ 7.5 billion
Tajikistan	US\$ 1 million

- 국가별 재원보충방식은 10%는 현금(달러 혹은 유로)지급, 90%는 어음 등의 형식(simple, non-convertible, non-interest-bearing bill of exchange)으로 납입

□ 조직구도 및 거버넌스

- 조직은 크게 ACF 위원회와 경영진으로 나뉘어 있음. ACF Secretariat에서는 ACF Council과 Council of Experts를 관리함.

- ACF Council: 회원국 각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 Council of Expert: 재무부 이사로 구성된 ACF council 지원 기구

- ADF Manager: 유라시아개발은행(EDB), ACF 재원 운용담당,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모스크바 지부에 있는 ACF에서는 같은 건물 3,4층에 60명 인원이 근무

- ACF는 독립된 Organization이 아니고, EDB의 한 기관으로, 회계절차 등은 EDB와 분리되어 있고, 관리만 EDB가 하는 식

- 과거에는 무상지원(Grants)의 형태도 있었으나 현재는 없고, 현재 주로 진행중인 재원 지원 형태로는 금융지원 및 투자 대출의 두 가지가 있음.

- 금융 지원 (Financial Credits): 회원국의 재정, BoP 여건개선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표> ACF의 금융지원 종류 및 지원조건

	수혜대상	지원기간	이자율	상환만기	유예기간
금융지원 (Financial Credits)	회원국 정부	최대 3년	1~3%(저소득국)) Libor+spread(중진국)	최대 20년(저소득국) 10년(중진국)	최대 5년
투자대출 (Investment Loans)	회원국 정부 또는 민간회사	-	Libor+spread+risk premium	최대 15년(정부) 10년(민간회사)	최대 3년

- 투자 대출 (Investment Loans): 민간 재원조달이 어려운 인프라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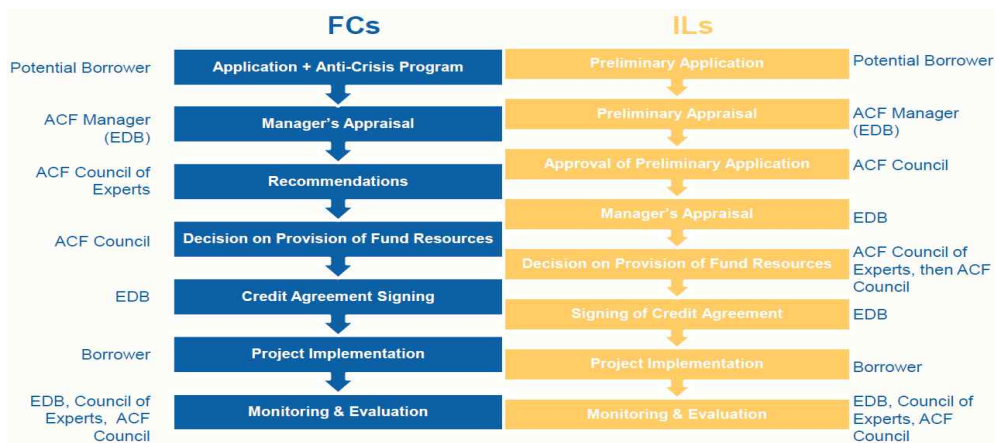
- 투자대출 주 종목은 교통 인프라, 에너지, 농업 분야가 있음.

<표> 투자대출 지원조건

	ACF 회원국	기업
이자율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원가능 금액	
리스크 프리미엄	프로젝트 위험 가능성을 기초로 ACF 위원회에서 결정	
선취 수수료(Front-end Fee)	최대 1%	
약정 수수료(Commitment Fee)	0.5%	
상환만기	최대 15년	최대 10년
유예기간	최대 5년	
타기금 동시 대출가능금액 (Co-financing Amount)	프로젝트당 20% 이내	

- 현재진행중인 Financial Credits는 벨라루스 프로그램과 타지키스탄 프로그램이 가동중. 벨라루스 프로그램으로 ACF는 2011년 6월 벨라루스에 30억불(11년~13년 기준, 15년까지 연장)을, 타지키스탄에 7천만불을 지원
- 지원 프로세스
 - 금융지원(FCs)의 경우: 회원국지원요청 + 위기대응프로그램실시 → EDB 심사 → Council of Expert 추천 → ACF Council 결정 → EDB 대출승인 → EDB, Expert, Council 감시 및 평가
 - 투자대출(ILs): 지원요청 → EDB 사전 심사 → ACF Council 사전 승인 → EDB 심사 → Expert 및 Council 결정 → EDB 대출승인 → 감시 및 평가 (EDB, Expert, Council)

<그림> ACF 지원 프로세스



- Eurasian Fund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ACF는 올해 6월 정도에 EFSD(Eurasian Fund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가칭) 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임

2.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창설 및 동구권 경제 구도의 변화

- 동구권 경제의 주축인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난 2015년 1월 1일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를 주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

- 루블화 환율은 급등·급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지난해 말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가가 배럴당 평균 6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5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 4.5%로 예상했으나, 국제유가는 이미 40달러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로 강등
- 지난해 12월 러시아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1.4% 폭등

- 러시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15년 1월 1일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를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공식 출범. 공식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4개국이며 키르기스스탄이 후보국으로 등록됨.

○ 유라시아경제연합 단계별 추진현황:

- 1994년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유라시아 공동체 창설을 제의했으며, 이후 자유무역지대 협정체결⁵⁾

5) 협정국: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 1996년 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에 대한 통합 심화 협정 체결
- 1999년 3국간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구역 조약체결
- 2000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⁶기구 창설 조약체결
- 2003년 단일경제구역(CES) 창설 협정체결
- 2010년 관세동맹(CU) 출범(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 2011년 유라시아경제통합 성명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조약(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단일경제구역의 운영 감독을 담당하는 유라시아 최고경제이사회 발족
- 2013년 12월 관세동맹 3국 정상회담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추진 일정 합의
-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EU-단일 세금, 단일 기술 규정, 노동법, 이민법 조화, 내부경계 강화)정식 출범

□ EEU 출범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크게는 푸틴 대통령이 경제·정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강한 러시아' 정책이 중앙아시아 지역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과, 포스트 소비에트 통합이 '소련으로의 회귀(Re-Sovietization, ресоветизация)'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반응으로 크게 나뉨.

□ EEU 핵심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인 유라시안 위원회(Eurasian Commission)와 사법 기관인 Court of the EEU, 금융기관인 유라시아 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이 있으며, EDB는 ACF(EuRaSEc-Anti Crisis Fund)를 운영중

3. 주요 질의 답변

□ ACF 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작되었다. 벨라루스와 타지키스탄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6)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 구소련 경제통합을 목표로 창설

본부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

- ACF는 ADB 와 WB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목적이 있었기에 중앙아시아에 본부를 세운 것이다.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셨는데, 펀딩은 어떤가?

- ACF의 경우에는 현금성 BAND가 아니라 ADB에서 관여하고 있음. 자본이 TRUST FUND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ACF 자체가 Fund, 특히 Trust fund이다.
- Trust Fund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주 기여국가이다. 금융 및 펀딩에 관련된 섹터는 직업을 창출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어 찬 국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 특히 ACF는 유럽-아시아를 아우르는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nvestor는 누구인가? 중앙은행, 국가?

- 마켓마다 다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국가가 펀딩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Financial institutions가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면 된다.

회원국들에게 EDB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가?

- 슬로바키아와 중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CF와 EDB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인가?

- ACF는 Organization이 아니고, EDB의 한 기관이다. 회계절차 등은 EDB와 분리되어 있고, 관리만 EDB가 하는 식이라고 보면 된다.

루블화와 러시아 경제위기, 그것이 EDB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14년 한해에 벌어진 일들은 사실 러시아 경제학자들에게도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국민들 일상 자체에 변화가 많이 없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Anti crisis program이 러시아에서 도약을 시작했던 것,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것 등은 교훈이었다고 하겠다.

□ ACF가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을까?

- 부정적이라고 본다.

⑥ 기타 자료

[1] 사진자료

- 유럽 안정화 기금



- 유라시안 개발은행 모스크바 지부

